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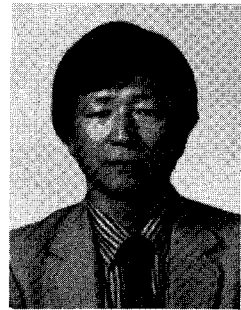
## ● 새해소망 / 양계업계에 바란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도 결코 먼 장래의 일만은 아니리라 믿는다.

양계인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국을 더 많은 아

시아 여러나라에 알리는 해이다. 모든 양계인들이 합심해 양계산물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 해로 삼음직하지 않을까? ▮

### 회원 조직의 활성화로 공동목표 구현을 위한 도약 필요



고 증 현  
(대한특수기계 대표)

올해는 가고 이제 거호를 잡을 병인년이 밝았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천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점을 상징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새로이 출발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것은,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의욕을 충만시키게 하는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가보다.

무엇보다도 양계업자가 힘들었던 을축년 한해 동안 동분서주 노심초사하며 힘써 주신 대한양계협회의 노고에 감사하며 병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고를 아끼지 말 것을 부탁드리면서 축산 업계의 일원으로서 대한양계협회에 바라는바 몇가지를 말씀드린다.

협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회원의 이익을 옹호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이익이라고 하는 구심점 속에서 단결된 힘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협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면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소외되고 유

명무실하게 되어 외면당하고 만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협회의 독자적인 책임은 아니며 협회가 구성원의 단합된 총화적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익표현과 현실은 개개 구성원의 총체적인 책임이요 과제인 것이다.

마치 사냥할때 총을 잘 쏘는 포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아서 사냥은 길을 올바르게 안내해 주는 길잡이와 사냥감을 몰아주는 물이꾼과 총을 쏘는 포수와 찾아서 물고오는 엽견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합하여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의 목적인 구성원의 이익구현은 구성원 각자가 시작도 끝도 없이 협회 속으로 들어와 용해되고, 협회는 이들을 수용하여 구성원 속으로 용해시킬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기점 논쟁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누구하나가 먼저다 하고 행동에 옮겨 시작하는 자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구성원의 총체적인 표현이 협회라고 볼 때 협회는 단지 길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해서는 해서는 안된다. 사냥감을 몰아주기도 하고 서투른 포수를 대신해서 총을 쏘기도 하며 잡은 사냥감을 찾아 오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때로는 잡은 사냥감을 맛있게 요리하여 상을 차리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모든 구성원이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가 되어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병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양계산업계가 웅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하부 조직인 각 지역 분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회원이 그 속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대규모 G.P. 센터의 공동운영 등 양계산물의 유통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 (가칭) '양계산업 합리화 자금'의 확보

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자금 등 설비투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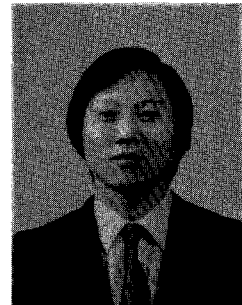
네째,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와 같은 협동조합적인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직접적으로 회원전원에게 이익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의 아시안 게임과 앞으로의 서울올림픽 등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의 양계산업도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제화의 추세에서 밀려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양계산업도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이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고 본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서 양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대한양계협회를 구심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힘을 합하여 같이 뛰면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어야겠다.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양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협회로

문 종 환  
(축산시보 취재부기자)



**한** 단체가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데는 면면히 흐르고 뛰는 맥(脈)이 있어야 한다.

이 맥의 흐름은 일순간에 형성되어지고 뭉쳐져 한곳으로 흐름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